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왕국절 제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9. 참 즐거운 노래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계절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어느덧 찬이슬 내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산과 들관은 조금씩 그러나 부지런히 주님의 시절을 좇아 아름답게 변화해 가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욕심의 이끼로 두터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가을 하늘처럼 맑게 씻어 주십시오. 그 하늘 통하여 야곱이 압복강을 건넌 후 보았던 형님의 얼굴 같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가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정의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여 주님 베풀어주신 하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교 독 문	1. 시편 1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지호 선생 II. 윤정덕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65.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다함께
성경봉독	마 10:32-39	인도자
	눅 19:1-10	홍순구 집사
찬 양	신앙검객	성가대
말 씬	나눔의 비의(秘意)	김재흥 목사
		한인철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에 감동하며 사십시오. 그 감동이 개인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다 함 께 :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덧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허물에 얽매어 살지 않고 주님 주신 새로운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도 때로는 천국을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한인철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김재흥 목사 <연약함의 교훈>	신명기 강해 (17)
기도: 조관행 집사/ 배삼순 권사(17)	기도: 유경순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장혜숙 권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고사일	하현철	박석희	이기분	최영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근종	유영남	최숙화	안정숙

밝습니다. 밝습니다. 고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는지요?”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는지요?”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낸다. 그 사람이 나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로 인사를 건네면 어느덧 내 마음이 열리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소통하여 하나가 된다. 이처럼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고 밝혀준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누는 대부분의 인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인사는 단순히 말 한마디를 건네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 주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닿아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삶의 소중한 끈이라 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끈이 끊어지면 아무 것도 아닌 남남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가 건네는 인사를 통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따스해지고 밝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면, 이보다 좋은 인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습관적으로 성의 없이 건네는 인사 말고, 이제 이런 인사는 어떨까?

이른 아침, 잠에서 일어나 가족들과 나누는 인사는 “밝습니다”. 따님은 아버지께 “아버지, 밝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드님, 밝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면 하루가 밝아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밝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낮에 벗들과 만나 나누는 인사를 “밝습니다”. 하루의 노동에 힘겹고 지쳐있는 서로에게 “벗님, 밝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면 어느덧 우리 마음의 그늘이 걷히고 밝아진다. 그래서 맑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다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누는 인사는 “고요합니다”. 모두가 잠드는 밤에 우리 마음속에 고요가 찾아오도록 “고요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면 어느덧 우리 가운데 고요와 평온이 깃들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한다.

그렇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나누는 “밝습니다”라는 인사 한 마디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맑은 대낮에 정신없이 일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습니다”라는 인사 한 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닦아 준다.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요합니다”라고 나누는 인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요하게 해 준다.

밝은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밝으신 것이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루의 아침을 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맑은 하루가 열렸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캄캄한 밤이라면 빛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없을 것이다. 하루의 한 가운데가 맑은 것은 온 하루가 맑은 것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밝으신 것이다. 투명한 풀잎처럼 우리 주님의 맑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루가 즐겁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맑아진다. 고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고요하신 것이다. 풍랑 일던 하루의 내 마음도 참 평화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면 이내 고요해지고 하늘의 별처럼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다. 우리가 나누는 인사대로,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밝아지고 고요해져서 우리가 보낸 하루가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인사법은 옛날 중세에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수도사들이 나누던 인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동료 수도사를 만날 때는 물론이요, 이른 아침 하늘을 나는 새를 만나면 “새님, 밝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낮에 굴참나무를 만나면 “굴참나무님, 밝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밤에 밤하늘에 달을 보고는 “달님, 고요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한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게 밝고 맑고 고요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밝고 맑고 고요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사랑하는 벗들과 나누는 인사 한 마디는 곧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되며, 이웃과 내가 주님으로 소통하는 영적인 인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 한 마디는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인사 한 마디는 벗들과 나누는 영적인 교감인 것이다.

혈관주사 같은 것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좋은 책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다
잠을 자면서도
가슴에 품고 싶은 책
돌처럼 굳어 있던 내가
또 다시 살아가기 위해
생명의 피를 돌게 하는
혈관주사 같은 것
이라고-. (이해인)

좋은 책은 의사와도 같습니다. 숨통을 틔워주기도 하고 새 힘을 얻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서점에 가보면 다른 책을 훑내내거나 짜깁기한 책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좋은 책을 만나는 경우도 있으나 지인(知人)을 통해 만나게 되는 책들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내게 필요한 책도 ‘처방’처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을 보고 싶던 사람도 만나시고 그를 통해 좋은 책도 만나보세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방현복 이부방 윤정덕 구성실 방문성 박혜경 김종수
 이순정 오진훈 노순옥 김훈동 유경순 조관행 홍선희 구명자 백승민
 안정숙 김근종 정옥영 박애순 강인식 김정숙 김순복 전영동 이인웅
 이영란 김 극 이소순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윤 김지호 고사일
 최영선 김재흥 최희영 한인철 조윤숙 박홍재 김희진 노용래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윤주원 최윤선 정원석 김현영 문금석 이동천 왕수명
 권미정 이정은 김종문 지명주 조항신 김미순 김정섭 송의섭 이경남
 임원민 임수연 최성애 하현철 노미향

감사헌금:

정두리 이인섭 구명자 박창운 허정윤 김순복 백묘현 장숙자 김수진
 김승현 표명화 황윤철 최숙화 김정길 한인철 조윤숙 이정은 김종구
 서정순 김윤수 김용진 박효선 복음장의사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재흥 박현우 서재홍 조관행 홍선희 조윤숙 문영혜 김창경 이증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노 용 래	정 두 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윤 정 덕	박 흥 업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김 명 희	정 진 경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곽 혜 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문 금 석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박 현 우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구 명 자	박 순 희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 1·3 남녀 , 나옴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심방** : 속원이 모두 참석하는 심방이 되도록 합시다.
15일(금) - 예배소, 빌립보
3. **전시회 관람** : 오늘 아동부가 샤갈 전시회에 다녀옵니다.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4. **청파테니스대회** : 다음 주일로 예정되어 있던 테니스 대회는 테니스장 예약의 어려움으로 올해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5. **속장인도자회** : 속장, 인도자 및 도서관 봉사자 가을 야유회를 다음 주 19일(화) 백양사로 갑니다.
6. **원로나들이** : 원로나들을 다음 주 21일(목) 아침 9시에 떠납니다.
7. **담임목사** : 중구용산지방 교역자들과 성지순례 중입니다. 14일(목) 저녁에 돌아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8. **신앙실천** : 책읽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던 책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 헌화 : 이한림 집사 (결혼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